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후 이용행태 분석

신유진* · 성종상**

*씨에이조경기술사사무소(주) 팀장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사회적으로 안전하게 개방된 공간의 수요는 코로나19의 등장 이후 급진적으로 증가하였다. 개방된 녹지공간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수월할 뿐 아니라,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외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미 대형공원의 조성사업은 지난 수년간 이루어져 왔고 서울 도심공간에서 추가적인 대형 녹지공간의 확보는 대상지를 선정과 추진과정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사이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인프라인 도로변 가로공간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좋은 대상지가 될 수 있다.

가로는 보행 및 교통에 기능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가로공간의 녹지확장과 연계는 가로환경 쾌적성을 높일 뿐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간이다. 서울특별시의 총 도로 연장은 2020년 기준 총 8,323km(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로 해당 도로의 가로변을 녹음과 보행로공간으로 활용해도 대형공원을 조성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2. 대상지의 역사

대상지인 세종대로는 역사, 공공행정, 업무 및 금융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서영애, 2016).

역사적으로 세종로는 조선건국 시 58자 규모로 뚫은 대로로서 일제강점기와 해방기를 거쳐 도로 폭이 100m까지 확장되고 2000년에 들어 숭례문에서 서울역 구간까지 포함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2010년 세종로와 태평로를 합쳐 현재의 '세종대로'라는 새 이름을 붙였다.

II.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내용

가로공간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설계적 시도와 연구가 있어 왔다. 경관을 위해 가로의 형태, 건물의 높이 등의 비율이 경관평

가에 영향이 있음(강은성, 2000)을 파악하였고, 보행자의 시야가 넓고, 수목의 위치와 조화가 가로경관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황세현, 2001)고 하는 등의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연구에 기반하여 만든 공간이라 할지라도 조성된 이후 이용행태를 살펴보면 전문가의 설계의도와 이용자의 행태가 다르거나, 선호경관의 연계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 공간에서도 실제로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의 위한 설계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일반대중의 선호가 반영된 가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일반인의 선호도 및 이용행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변재상, 1999) 게다가 역사, 정치, 업무, 문화 등 복합적 특징을 가지며 유동인구가 많은 세종대로의 특성상 가로경관에 대한 이용행태의 자료는 서울시 가로경관 및 공간 개선 사업에 주요한 자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대상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세종대로 가로에서의 이용행태 및 선호경관 분석을 위해 조성 후 이용모습을 가장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SNS 포스팅 사진과 키워드로 분석하였다. SNS상에서 #세종대로, #세종대로사람숲길이라는 키워드로 각각 100개의 표본들을 추출하고 그 사진들을 공간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표본들로부터 관련 해시태그를 종합하여 작성자의 게시물로 당시의 의도 및 생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행사 및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한 게시물들은 제외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사람숲길 조성사업이전 게시물들의 해당 키워드로는 가로변 카페, 맛집 등의 가로 주변 실내 사진 및 도로, 행사 조형물, 야경 등의 사진이 게시되었던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카페 등의 실내이용이 제한되면서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 후 게시물에서는 평일 휴식시간 및 식사 시간이 후 세종대로 사람숲길을 이용하는 수요와 가로변 그늘 아래, 초화식재지 옆 벤치 등에서의 휴식을 하며 식재지내의 초화 및 수목 경관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게시글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이에 따라 대상지의 모습을 담은 게시글의 경향을 볼 때 사진을 담은 시간대, 위치, 경관에서도 차이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로 공간 내 자연요소인 수목그늘, 초화등의 식재공간 등을 찍어 올리는 경향을 볼 때 사람숲길의 조성 전과 후가 이용의 행태 및 선호공간유형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Table 1 참조).

Table 1. 게시사진유형

시기	게시 사진유형 및 행태				
조성 전	카페	맛집	도로	행사	야경
조성 후	수목그늘	초화	도로	산책	주/야경

IV. 결론

본 연구는 세종대로는 일상시에도 많은 유동인구의 활동이 있고 행사 및 관광객들로 인해 많은 인파가 보행하는 특성이 있는 가로임에도 최소 4m~9m의 협소한 보도폭과 각종 지장물(가판대, 환기구, 한전박스, 맨홀 등)로 인해 보행환경 및 이용편의성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접하는 가로공간에서의 시간을 즐기지 못 하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도폭의 확장으로 보행로의 정비와 녹지공간의 조성으로 인해 쾌적한 보행

환경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일상에서 비밀상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실외공간 특히나 가로공간에서 얼마큼의 실내공간의 프로그램의 수요를 받아줄 것인가가 가로공간의 잠재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SNS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의도나 의견 중 조성이 후인 2021년 5월에서 2021년 9월까지의 게시물을 토대로 분석했기 때문에 데이터의 분석 시간과 양으로 판단한다면 도출된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때문에 후속연구에서 SNS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의 이용행태 및 선호공간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강은성(2000) 보행자 전용도로의 형태에 따른 경관 선호도분석.
2. 변재상 외(1999) 도시가로경관요소가 시각적 선호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에 관한 연구.
3. 서영애(2016) 역사도시경관으로서 세종대로(구)국세청 별관 부지설계.
4.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2020)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5. 우경숙(2020) 서울로 7017 방문자들의 이용행태 분석.
6. 조용현(2006) 녹지량 지표로서 녹시율 개념을 도입한 서울시 가로 환경 특성 분석.
7. 황세현(2001) 보행자 시점에 따른 가로경관 평가에 관한 연구.